

박동하수필집

무정한 세월



연변인민출판사

박동하수필집

무정한 세월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김현순

책임교정: 김홍화

표지설계: 최 강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无情的岁月/朴东河 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7. 12

ISBN 978-7-5449-0103-1

I. 无 . . . II. 朴 . . . III. 随笔—作品集
—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 267.1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7) 第203193号

无情的岁月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印刷: 吉林省图们市日升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4.5 字数: 10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103-1 (民文)

版次: 2007年 12月 第 1 版 2007年 12月 第 1 次 印刷

印数: 1—500 册 定价: 15.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작자의 말

생각해보면 지금껏 살아온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 날들이었으며 수많은 회로애락의 곡선을 그어가며 씁쓸이 뛰여온 숨찬 삶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나는 이제야 주변의 모든것에 감사할줄 아는 년륜에 이르렀음을 자각하게 된다.

지금 나 자신이 그렇게 여유를 부려볼 처지가 아니라는 현실에 맞부딪친듯하여 지나간 세월을 글로 대충 추려보려 했다. 그 과정에 점차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탐구가 생기는데 그것을 글로 표현한것이 수필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니 나 자신의 체험과 자아탐구, 그리고 발견(느낌)에 바탕을 두지 않을수가 없다. 이렇게 써낸것이 수필집 《무정한 세월》이다.

그런데 쓰다보면 생활에서 당년의 숨결까지 드러나는게 민망스러울 때가 있거니와 독자들에게 때 지난 소리로 들리는것 같아서 걱정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수필에 있어서 표현대상은 궁극적으로 필자자신인걸 어찌하겠는가? 나는 개의치 않고 그대로 쓰기로 했다.

오로지 이 수필집이 속되거나 무미건조하지 않고 조금이나마 담백한 향기라도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 독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바이다.

아직 많은것들이 남아있는듯하여 앞으로 삶이 허락하는 한 나는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를 충실하게 해나갈 예산이다.

항상 가까이에서 지켜봐주고 돌봐주는 내 가족 모두에게 사랑의 마음 전하고싶다.

보잘것없는 글이나마 개의치 않고 걱정해주시는 주변의 여러 선생님들과 손수 편집을 맡아주신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아동문학학회 김현순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연변인민출판사에도 감사함을 전한다.

2007년 4월 30일

박동하

차례

작자의 말/	001
어머니 사랑/	001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004
계절과 초목/	007
구인사의 장독거리/	012
민들레/	015
산촌의 서정/	017
개수(个数)와 저울/	022
고마움에 대하여/	025
《고진감래》란 말을 두고/	028
고향의 느티나무/	031
꿀벌/	034
낡은 사진첩/	037
희망찬 꿈/	040

현명하게 쓸줄 알아야 한다/ 043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로부터/ 046
첫 수필집을 쓰기까지/ 049
천년묵은 소나무/ 053
집안을 정리하며/ 056
진실을 쓰게 하자/ 059
잡초/ 063
잊지 못할 어린 시절의 사계절/ 066
인생은 대신 살수 없다/ 071
이사/ 074
이름(1)/ 077
이름(2)/ 080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083
웃음/ 086

우산을 손질하면서/	089
아버지 눈물/	093
아름다운 모습/	096
선생님은 귀중한 존재/	099
사소한 풍파/	103
《사랑한다》는 말을 두고/	106
부부사이/	110
부동한 세대의 꿈/	115
별 회한한 일/	119
무정한 세월/	122
만천성층계를 오르며/	126
동심을 지켜주자/	129
노을/	132

어머니 사랑

이런 우화가 있다.

천국에서 신이 천사를 불러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가지를 가져오라고 했다. 천사는 지상을 돌아보고 예쁜 꽃과 어린애의 웃음, 그리고 어머니 사랑 이 세가지를 골라가지고 돌아오는데 거리가 멀어 긴 세월이 걸렸다.

천사가 이 세가지를 신앞에 내놓는데 예쁜 꽃은 이미 시들어 추하게 변해버렸고 어린애 웃음도 몇년이 지나는 사이 아름다운 모습을 잃고말았다. 그러나 한결같이 변치 않고 아름다운것은 어머니 사랑이었다. 결국 신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것으로 어머니사랑을 받아들였다.

이 우화속에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것은 어머니 사랑이라는 인생의 깊은 진리가 담겨있다.

주고 주고 또 주는 끊임없는 어머니사랑- 샘물이 철철 넘치듯 어머니 가슴속에는 사랑의 따뜻한 빛이 한 없이 솟는다. 우리 자식들은 이 사랑을 먹고 자랐고 이 사랑의 힘으로 성장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엄마가 좋아/ 엄마가 없는 아이는 풀과 같지요/ 엄마품을 떠나면/ 행복이 어디 있으랴...》라는 노래도 있지 않는가.

엄마의 손길은 자식을 떠날 때가 없다.

진자리 마른자리-가려가며 자장이 불러오셨고 더울 세라 추울세라 갖추어 입히며 째세라 싱거울세라 가려 먹였고 책가방 들고 손잡고 입학길에 오르셨고... 실로 엄마의 손길은 그 어느 한시도 자식을 떠날 때가 없었다.

어찌 그뿐이라. 꽃같은 얼굴에 그늘이 질라, 옥같은 마음에 티가 묻으랴, 익히는 걸음마 빼뺏어질라...그 어느 한시도 엄마의 눈길과 마음이 떠날새 없었다.

이렇게 자식을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고 사회에 내 보내면 만사시름을 놓아야겠는데 어디 그런가?

자식들 살림이 잘 돼가는지? 자식들이 하는 사회일은 어떻게 돼가는지? 자식들의 모든것이 눈에 밝혀온다. 어머니로 불리울적에는 손길보다 눈길이 따라다니면서 자식들을 살피고 마음을 썩인다.

어머니의 기력이 점점 못해지면서 할머니로 불리울적에는 자식들의 앞에 나서 살피지 못하게 되지만 마음

속으로는 한시도 자식들의 일로 걱정하지 않을 때가 없다. 이때는 자식들이 일이 잘 돼나가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것이 할머니들의 일과가 아닐수 없다.

어머니 사랑은 엄마로 불릴적에는 손길로, 어머니로 불리울적에는 눈길로, 할머니가 되었을적에는 마음길로, 한줌의 흙이 된 뒤에는 꿈길로 자신의 손을 세상속으로 자신있게 내민다.

친구간의 우정, 젊은 남녀간의 사랑, 형제자매간의 동기에, 부부간의 사랑...그 어느것인들 고귀하고 아름답지 않으련만 어머니사랑만큼 으뜸가는 사랑이 되지 못한다.

어머님의 사랑은 세상에 둘도 없는 거룩한 사랑이다.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사길은
예 있으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는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지는 것처럼
한 가지에서 나고
가는 곳 모르오니
아아,
미타찰에서 만날 날
도둑아 기다리겠노라.

이 노래는 신라경덕왕 때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생각하고 지은 《제망매》이다.

동기간 형제자매도 한 부모에 태어났는데도 얼마쯤 동거기간이 지나면 뿔뿔이 헤어져 살다가 죽는 인생을 싫어하는 신라때 노래이다.

유한한 인생, 참으로 한스럽다. 랑친부모와 형제가 한집에서 천백년을 함께 산다면 오죽 좋으련만 단 30년도 함께 못사는것이 대체적인 인생이다. 단란한 가족, 그 한가족은 세월과 더불어 핵분열을 하고 중국에는 그 생명체 자체가 소멸되고 만다.

《엄마, 아빠》라고 부르다가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시간이 더 지나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부르게 되어 효도하려고 할 때는 주름 잡히고 백발이 된 로쇠한 1세들이 먼저 세상을 하직한다. 그리고 형제자매도 결혼, 취직, 자기 생활사정 등으로 뿔뿔이 떠난다. 그 뒤로는 꽃샘바람앞의 꽃잎처럼, 늦가을의 낙엽처럼 하나, 둘 저 세상으로 떠난다. 그렇게 되면 호구부에, 신분증에 직장출근부에, 인사기록부에 적혀있던 잉크냄새 물씬 풍기던 생생한 이름, 정답던 얼굴이 차츰 퇴색되고 마침내는 사람들 기억속에서 멀어진다.

참으로 속절없는 인생이다. 세월이란 바다에서 피안의 세계를 그리며 노를 저어가는 과정이 인생이 아닐가.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인생사가 내린 철리적결론은 서로 만나 함께 살아갈 때 잘 지내라는것이다. 아껴주고 리해하고 도와주고

정을 나누고 부지런히 좋은 일을 하라는것이다. 아들이면 아들노릇, 남편이면 남편노릇, 아버지면 아버지 몫을 하라는것이다. 관리인이라면 관리인답게 백성이면 백성답게...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진보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가면 보람이 더해지고 삶의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다는것이다.

그러나 불의를 만들어서는 차라리 아니 함만 못하다.

약자를 통렬하지 말고 강자앞에서 비굴하지 말아야 한다. 리순신이 될지언정 리완용이 되지 말라는것이다. 불의를 보고 외면함도 비겁하다. 《아침에 인의와 함께 산다면 저녁에 죽는들 다시 무엇을 구하리.》라는 도연명의 기개가 부럽다. 《도움을 못줄망정 혈뜬는 사람은 되지 말자.》, 《아무리 유명해지고 출세했고 하더라도 부자가 되어도 결코 오만하지 말자.》, 《배은망덕하는 사람은 더더욱 되지 말자.》 이것은 정직을 지키는 인생도덕이 아니겠는가.

인생이란 그렇게 대단한것도 아니요, 그렇게 슬픈것도 아니다.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이니만큼 불의를 일으킬 필요없이 이왕이면 성실하게 점(하루하루를 가르킴)들을 찍으면서 그것들을 연결시켜 선명하게 선(일생)을 긋자는것이다.

계절과 초목

봄

저마다 푸른 꿈이 부풀어오르는 봄.

초목이 기지개를 펴면서 생의 노래를 부르고 생의 보람과 희열을 느끼게 한다.

봄의 푸르름으로 초목은 키돋음을 하고 향기롭고 따뜻한 생활속에 정서를 북돋운다.

초목들은 잎을 새로 피워내려고 하고 꽃은 싱싱하게 피어나려 하고있다.

그러나 우리에게겐 다투어 피는 꽃을 보고 감론을박

하면서 목련꽃은 아름답고 호박꽃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졸렬한 편견들이 머리를 파고들지 않았던가.

외진 곳에 초라한 꽃을 피웠거나 그것마저 피우지
못한 친구들은 시드는 자신의 봄날을 서러워서 울었고
비바람에 짓기고 부대끼면서도 땀땀이 일어서는 친구들
은 승리감에 가슴이 뿌듯했는가 하면 남의 시선을 한몸
에 받을만큼 화려한 꽃을 피웠던 친구들은 행복에 겨워
웃고 우쭐거리기도 했다.

이렇게 울고웃고 재잘거리면서 우리의 봄날은 지나
갔다.

여름

활력으로 박차를 가하는 태양의 계절-여름.

태양의 세례를 받아 청신하고 무성한 록음을 띄는
계절에 모든 초목들은 분투하면서 땀땀을 흘려야만
했다.

시시각각 무더워나 목마름을 이겨내야 했고 폭풍우
의 시련도 겪어내야만 했다. 아직 여름지 않은 자신의
열매가 가물에 마를세라 비바람에 떨어질세라 속도 태
워야만 했다. 이처럼 모든 세례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속에서 지혜의 열매는 열려서 익어가는것이다.

한 여름을 지내기가 아무리 지루하고 힘들어도 반드시 청량한 바람을 싣고 다가올 가을이 있다는 어김없는 약속이 있기에 참고 견디어내는것이다.

이처럼 모든 초목들은 힘들지만 신심 가득히, 고통스러워지만 량만적으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열심히 여름을 보낸다.

가을

풍성한 열매를 건어들이면서 단풍으로 물들이는 가을.

봄의 푸르른 꿈을 키우면서 여름의 분투를 거쳐 마침내 가을의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초목은 자호감으로 설레인다.

벼에 벼이삭이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린다.

그러나 그 열매를 맺고 익히기 위해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것은 결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남을 즐겁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자신이 걸어 온 길은 결국 남을 위해서임을 사람들에게 깨우치게 하면서 새삼 숙연해지게 한다.

가을이 깊어가면 나무는 단풍으로 물들어가면서, 어